



백종원

“소주, 증류주, 발효주까지 우리나라 전통주가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앞으로는 주량이 아니라 어떤 술을 좋아하는지 종류를 얘기하는 문화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백선생” 백종원이 이번엔 한국의 전통주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나섰다.

넷플릭스는 최근 온라인 제작발표회를 열고 새 오리지널 시리즈 ‘백스피릿’을 내달 1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백스피릿’의 연출은 백 대표와 tvN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 시리즈에서 호흡을 맞췄던 박희연 PD가 맡아 일찍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백종원 대표가 아 대표는 “한식만큼 뛰어난 전통 술들이 무궁무진해서 알릴 방법을 항상 고민해왔는데, 넷플릭스에서 제안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술을 해외에 알릴 수 있다는 게 감사해서 그때 넷플릭스 결제를 시작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백스피릿’ 촬영을 위해 전통 술에 관한 공부를 많이 했다고 밝힌 그는 “국내

이 출연한다.

백 대표는 “평소에 친분이 있는 분도 있고, 평소 팬이었던 분들도 있다”며 “(게스트마다) 색과 매력마다 달라서 좋았다”고 말했다.

애기를 흥미롭게 잘 풀어주시는 걸 보고 더 많은 사람이 이 이야기를 즐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백스피릿’을 시작하게 됐다”고 제작 계기를 밝혔다.

이어 “백 선생님이 기존 예능에서 음식과 요리에 집중하셨다면 이번엔 술을 소재로 했다는 것, 선생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삶이 담겼다는 것이 큰 차별점”이라고 설명했다.

프로그램 제목에 대해서는 “넉게는 술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백 선생님이 누군가와 함께 술자리를 즐기면서 삶과 인간성, 사람의 정신을 담았다는 이중적인 의미”라고 설명했다.

백 대표는 “한 번은 술에 집중해서, 한 번은 사람의 인생에 집중해서 보시면 보실 때마다 다르게 보일 것 같다”며 “다른 관점으로 여러 번 시청하시길 권해드린다”고 관련 포인트를 짚었다. /연합뉴스

백종원의 술과 사람 이야기...내달 1일 넷플릭스

“전통 술 해외에 알릴 수 있는 소중한 경험 될 것”

시청자들은 ‘정말 맛있는 술들이 있었구나’, 해외 시청자들은 ‘이런 것도 있었구나’ 하고 숨겨진 진주를 찾는 느낌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6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된 ‘백스피릿’에는 배우 김희애, 이준기, 한지민, 배우전수 김연경, 나영석 PD, 가수 박재범과 로꼬 등 다양한 분야의 게스트들

이어 “촬영을 할 때 박희연 PD가 카메라가 보이지 않게 장치를 잘해냈다. 그러다 보니 출연자도 저도 (촬영이라는 사실을) 까먹고, 들이 술을 먹고 얘기하는 데 집중하면서 자연스러운 모습이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박희연 PD는 “백 선생님과 오래 프로그램을 같이하면서 평소 술에 관한

창작 뮤지컬 ‘광주’ 일본 전역에 송출

한류전문채널 ‘위성극장’ 2023년까지 총 6번 상영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해 제작된 창작뮤지컬 ‘광주’가 일본 ‘위성극장’을 통해 일본 전역에 방송된다.

위성극장은 일본 쇼치쿠(松竹) 브로드캐스팅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CS방송국의 한류 전문 채널로 국내 드라마, 영화, 뮤지컬 등의 한류 콘텐츠를 일본 전역에 송출한다.

드라마 ‘시그널’, ‘폼위 있는 그녀’, ‘우리가 만난 기적’ 등 유수의 한국 콘텐츠를 유통하며 한일 콘텐츠 비즈니스 선두자로 알려진 주식회사 ‘콘텐츠 레인지’가 이번 위성극장을 통해 뮤지컬 ‘광주’를 소개했다. 위성극장 방송 상영은 지난 9월 23일 1회 방송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총 6회에 걸쳐 방송될 계획이다. 방송 일정은 미정.

이번 위성극장에 상영되는 뮤지컬 ‘광주’는 지난 2020년 11월 5일 홍익대 아트센터에서 초연된 뮤지컬을 영상으로 담은 작품으로 1부(70분), 2부(60분) 총 130분으로 구성돼 있다. 출연배우는 테이, 김찬호, 장은아, 정유지 등이다.

일본 위성극장 관계자는 “뮤지컬 ‘광주’는 ‘아시아의 레미제라블’이라고 할 수 있다”며 “한국의 민주화를 앞당긴 시민운동을 소재로 재미와 감동이 있는 뮤지컬이라 일본 관객들에게도 충분히 추천할 만한 작품으로 판단해 방송 상영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황룡년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코로나19로 해외공연시장의 활로가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뮤지컬 ‘광주’가 일본 전역에 송출된다는 것은 작품성과 상품성을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광주와 5월 정신을 문화콘텐츠를 통해 세계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연수기자



(왼쪽부터) 홍경민, 왁스, 정동하.

/광주관광재단 제공

광주관광재단 ‘버스킹 in 광주’ 언택트 공연

내달 1일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라이브 송출

광주관광재단이 오는 10월 1일 오후 7시 제1 유튜브 채널(광주관광TV)을 통해 ‘버스킹 in 광주’ 공연을 실시간 라이브로 송출할 예정이다.

버스킹 in 광주는 ‘예술 여행 대표도시, 광주’를 알리기 위해 광주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감성 뮤직 토크쇼다. 정동하, 왁스, 홍경민이 참여하는 이번 공연은 정동하의 ‘생각이나’로 첫 무대를 열고 홍경민의 ‘내 남은 사랑을 위해’, 왁스의 ‘화장을 고치고’ 등 추억과 감성을 자극하는 곡들과 출연진의 토크쇼가 결합된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연은 광주시와 광주관광재단이 주최·주관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될 예정이다.

광주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라이브 공연 외에도 추후 광주관광 TV에는 정동하, 왁스, 홍경민의 맛있는 전라도 한정식 먹방과 공연 비하인드 영상 등이 추가로 업로드 될 예정이다.

또한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한 구독 인증, 라이브 방송 도중 실시간 퀴즈 진행 등을 통해 경험(진품 사인CD 등)을 제공하는 다양한 비대면 이벤트 운영으로 공연에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또는 유튜브 채널 ‘광주관광TV’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연수기자

극장서 다시 보는 추억의 명작

청춘 영화 ‘고양이를 부탁해’부터 1차 대전 배경 ‘가을의 전설’까지



영화 ‘고양이를 부탁해’ 포스터. /위너브러더스 코리아 제공

팬들을 설레게 할 추억의 명작들이 극장에서 다시 선보인다.

배두나와 이요원이 주연한 청춘 영화 ‘고양이를 부탁해’가 10월 13일 4K 리마스터링 버전으로 재개봉한다. 2001년 10월 13일 개봉해 꼭 20년 만이다.

자유롭게 세상을 날고 싶은 영풍한몽사가 태희(배두나 분), 사회로 첫발

을 먼저 내디딘 현실주의자 해주(이요원), 생계를 위해 꿈을 잠시 미뤄둔 지영(옥지영), 친구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쌍둥이 자매 비류(이은주)와 은조(이은실) 사이에 고양이 한 마리가 끼여든다.

영화는 기존의 획일적인 청춘 영화들과 달리, 갓 스무살이 된 다섯 명의 고등학교 친구들을 통해 젊은 여성들이 처한 현실을 세밀하게 그려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1기 출신인 정재은 감독의 데뷔작으로, 화면에 문자를 띄우는 등 당시로서는 새롭고 감각적인 연출로 호평받으며 로테르담 국제영화제에서 네덜란드비평가협회(KNF) 특별언급상을 받았다.

이후 국내에서도 부산국제영화제 넷팩상, 청룡영화상 신인여우상, 백상에 술대상 여자최우수연기상·여자신인연기상, 대한민국 영화대상 신인감독상, 춘사영화상 심사위원 특별상·여우주연상·기획제작상 등을 받았다.

‘고양이를 부탁해’ 디지털 리마스터링 버전은 지난 8월 서울국제여성영화

제에서 처음 공개됐다.

21세기 거장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그레비티’ (2013)는 10월 6일 개봉을 확정했다.

영화는 우주왕복선을 수리하기 위해 처음 우주 비행에 나선 의료 공학 박사 라이언 스톤(샌드라 불릭 분)과 베테랑 우주 비행사 맷 코왈스키(조지 클루니)가 폭파된 인공위성 잔해와 부딪히며 소리도 산소도 없는 우주 한가운데 남겨지는 사건을 그린다.

연출과 제작, 각본과 편집까지 맡은 쿠아론 감독은 무중력 상태의 우주를 완벽하게 재현하기 위해 5년 동안 실사 촬영과 컴퓨터그래픽(CG) 작업을 이어나갔다.

영화는 제86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감독상과 편집상, 촬영상, 시각효과상, 음악상, 음향믹싱상, 음향효과상까지 7개 부문에 석권했다.

앤서니 홉킨스와 브래드 피트가 주연한 ‘가을의 전설’도 다음 달 27일 만의 재개봉을 예고했다.

1913년, 전쟁을 피해 몬테나주 목장에 안착한 리더로우 대령(앤서니 홉킨



영화 ‘가을의 전설’ 포스터. /위더컴퍼니 제공

스)과 세 아들 알프레드(에이든 쿤), 트리스탄(브래드 피트), 새뮤얼(헨리 토머스)의 이야기다.

유학을 떠났던 막내 새뮤얼이 약혼자 수잔나(줄리아 오먼드)를 데려오면서 고요했던 목장에 웃음이 깃들기 시작하지만, 세 형제가 1차 대전에 참전하게 되면서 슬픈 운명이 시작된다. /연합뉴스

가을 물들이는 ‘음색 남신’ 발라드

특유의 음색과 애절한 감성으로 사랑받는 발라드 가수들이 잇따라 신곡으로 돌아온다.

소속사아카이브아침에따르면 ‘음색 남신’이라 불리는 김필은 29일 데뷔 10주년 기념곡 ‘처음 만난 그때처럼’을 발매한다. 소속사는 “가을의 감성이 물씬 느껴지는 클래식한 발라드”라고 신곡을 소개했다.

달 7일 새 앨범을 발표한다.

소속사 뉴런뮤직은 “필름이 새로운 음악을 들려드리기 위해 많은 뮤지션과 함께 작업해왔다”고 밝혔다.

그를 만드는데 24일 연인에게 바치는 세레나데 ‘9월 24일’을 내놨다. 사랑하는 사람을 처음 만난 9월 24일부터 매일 한결같이 사랑하겠다는 다짐을 담았다. /연합뉴스

오늘의 운세 김도완 선생 제공 02-766-1818 www.esazu.com

9월 29일 (음력 8월 2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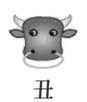
48년생 모두가 힘을 합치면 반드시 위기를 넘길 수 있다. 60년생 지성이면 감천이다. 72년생 노력이 결실을 맺는다. 84년생 사랑하는 연인을 믿고 이해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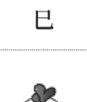
52년생 급할수록 돌아가라. 64년생 지인에게 부탁할 일이 있겠다. 76년생 스트레스를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 88년생 동료의 짜증을 오늘만 참아줘라.



44년생 선한 사람에게는 적이 없는 법이다. 56년생 뜻은 높으나 현실은 한심하다. 68년생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 80년생 재주를 발휘하여 인정을 받는다.



49년생 몸도 마음도 아직은 청춘이다. 61년생 차분히 재검토할 시간을 갖자. 73년생 나에겐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 85년생 순조롭게 일이 풀린다.



41년생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다. 53년생 습지가 양지되는 날이다. 65년생 충분히 검토한 후에 투자하라. 77년생 연인으로 부터 선물을 받겠다.



45년생 구설수가 있지만 큰 문제는 안 되겠다. 57년생 운세 좋은 날이다. 69년생 정신을 집중하면 해내지 못할 일이 없다. 81년생 첫인상을 믿지 말라.



50년생 웃는 얼굴에 복이 가득하다. 62년생 번잡한 일은 해소되고 이제 마무리만 남았다. 74년생 손해 보는 장사는 접어라. 86년생 마지막까지 명예를 지켜라.



42년생 과거는 잊고 새 출발하라. 54년생 재주는 꿈이 부리고 돈은 왕 사랑이 번다. 66년생 나의 처지가 빛 좋은 개살구이다. 78년생 반가운 소식이 있겠다.



46년생 과거는 잊고 미래만 생각하라. 58년생 꿈은 이루어진다. 70년생 다소 거북한 일이 생겨도 내색하지 말라. 82년생 융통성이 요구되는 날이다.



51년생 충추고 노래하니 즐겁다. 63년생 시련은 가고 조금씩 안정을 찾아간다. 75년생 생각지도 못한 행운이 따른다. 87년생 다툼 사람은 화해를 하게 된다.



43년생 쉬운 것부터 하나씩 해결 해보자. 55년생 부부간에도 지켜야할 선이 있다. 67년생 능력을 인정받는다. 79년생 막힌 길이라면 돌아가야 하는 법이다.



47년생 귀인이 찾아오니 손님 맞을 준비를 하라. 59년생 일단 결정했다면 앞만 보고 달려가라. 71년생 하면 된다. 83년생 명분보다 실리를 택할 때이다.